



미 증시, 고용지표 불확실성에도 위험선호심리 지속

미국 증시 리뷰

2 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8 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를 앞둔 대기심리 속 성장주 차익실현물량 출회로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주간실업지표 등 주요지표 개선, 유가 강세 등에 힘입어 장 후반 반등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 마감(다우 +0.4%, S&P500 +0.3%〈나스닥 +0.1%〉). 업종별로는 에너지(+2.5%), 헬스케어(+1.1%), 산업재(+1.0%) 등이 강세, 커뮤니케이션(-0.7%), 경기소비재(-0.1%), 기술(-0.1%) 등이 약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34.0 만건으로 전주(35.4 만건) 및 예상치(34.5 만건)를 모두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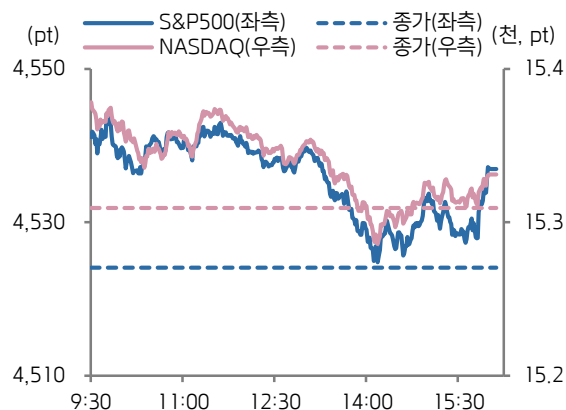
8 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건수는 전월대비 17% 감소한 15,723 명으로 1997 년 6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8 월 누적 감원건수도 24.7 만건(-87%YoY)으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의 타이트한 인력 수급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미국 증시 평가

실업수당청구건수 감소, 기업들의 감원건수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유효. 9 월부터는 추가실업급여프로그램이 본격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 내 대부분 학교들이 개학 이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직장 복귀도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다만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완전 고용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강력한 고용 회복세가 이른 시일내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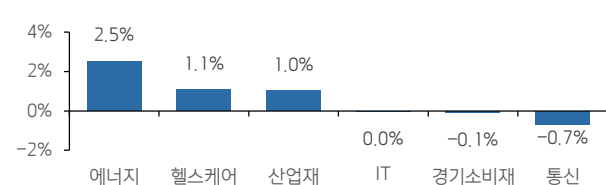
고용시장을 포함한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놓고 시장참여자들과 연준 사이의 간극은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상당부분 줄어든 상황. 이제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나(ex: 막대한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을 자극),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ex: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고 속도도 빠를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이나 둘 다 부담이 되는 요인. 따라서, 3 일(금) 발표 예정인 8 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컨센서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발표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S&P500&NASDAQ 일종 차트(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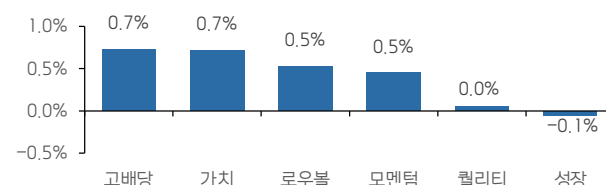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8.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 마감 후 밤 시간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둘러싼 관망심리의 장중 확대 여부 2. 애플카 협력 기대감 재부각으로 인한 관련 자동차 밸류체인 주가 변화 3. 미국 고용지표 관망심리에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수급 호전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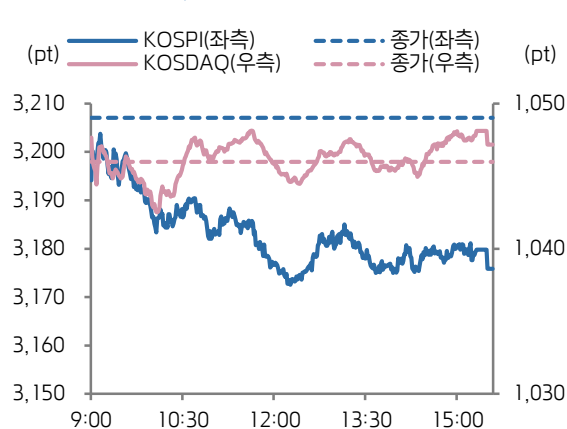
2 일(목) 코스피는 미국 ISM 제조업 지표 호조에 따른 한국 수출 개선 기대감에도, 3 일(금) 미국 고용지표를 앞둔 경계심리 심화 속 최근 3 거래일간 연속 상승으로 인한 대형주 중심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파로 하락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1%).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0%), 증권(+0.9%), 철강금속(+0.8%) 등이 강세, 은행(-6.7%), 의료정밀(-2.9%), 운수창고(-2.4%)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00억원, 5,750억원 순매도, 개인이 9,416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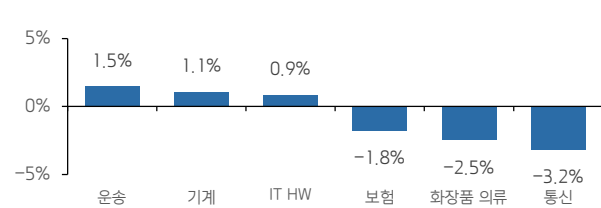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1% 가까운 하락에 따른 일부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도, 전반적인 장중 흐름은 눈치보기 장세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미국 증시 강세, 역외 시장을 통해 확인된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에도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결과 불확실성이 장중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심리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다만 여전히 국내 증시도 위험선호심리 현상이 남아있는 만큼, 전 업종이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업종 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이와 관련해 연초에 확산됐다가 수개월 간 소강됐었던 애플의 한국 기업들과의 애플카 생산 협업 가능성이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제기된 만큼, 국내 증시에서 완성차 및 관련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변화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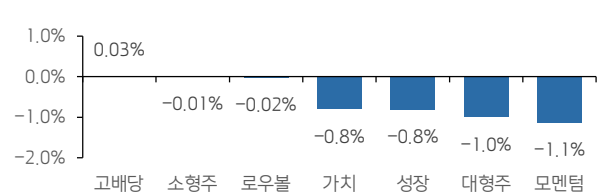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중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